조선시대 복식에 사용된 종이심에 관한 연구

오 숙 경 ·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Jongi-sim* used in the Costumes of Joseon Dynasty

Suk-Kyeong Oh · Na-Young Hong⁺

Mast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received date: 2014. 11. 28, accepted date: 2015. 2. 9)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Jongi-sim*(Paper used for interlining) used in costumes of the Joseon Dynasty. Terms related to *Jongi-sim* include '*Anji*(按紙)', '*Soh*(槩)' and '*Gyeok*(隔)'. *Anji* is a term that refers to *Jongi-sim* used on padded clothes. *Soh* refers to stiff and thick paper inserted between fabrics. *Gyeok* is predicted to be a term that refers to the use of paper as both interlining and lining. *Chojuji*(草注紙) was used for *Jongi-sim* in *Cheolik*, *Aekjueum*, *Baji* and *Dae* among kings and crown princes' ceremonial costumes. *Chojuji* and *Jeojuji*(楮注紙) were used in women's royal costumes such as *Jeogori*, *Hosu* and *Chima*. *Doryeonji*(搗練紙) was used in *Dae* and *Yangjeom*. *Gongsangji*(供上紙) was used for the interlining or lining in *Yangjeom*. Excavated costumes that used *Jongi-sim* for the entire clothes are *Cheolik* and *Jangjegori*. *Jongi-sim* placed in *Git*(collar) was sometimes placed together with cotton. *Geodeulji* of *Jangot* used paper in invisible parts as to replace fabric by paper. *Danryeong* and *Dapho* attached *Jongi-sim* to *Mu*, and stiff paper was inserted.

Key words: *jongi-sim*(종이심), Joseon(조선), Korean traditional paper(한지)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Na-Young Hong, e-mail: nyhong@ewha.ac.kr

I. 서론

심감이란 겹·안감 사이에 넣는 별도의 피륙을 말한다.¹⁾ 심감은 복식 전체 혹은 일부에 쓰여 보온성과 내구성을 높여주고 옷의 태를 좋게 한다.²⁾ 오늘날에는 심감으로 직물이나 편물, 부직포가 사용되지만, 조선시대에는 종이를 심감으로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종이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에는 저고리에 사용된 종이심의 구성법을 밝힌 것이 있으며³⁾, 누비나 출토유물의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에서 충전재로 거론된 것이 있을 뿐⁴⁾, 종이심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왕실 문헌과 출토복식을 통해 조선시대 복식에 사용된 종이심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례도감의궤』와 『상방정례』를 토대로 종이심에 관한 용어와 종이의 종류를 살펴보았으며, 『택지준절』, 『대전통편』, 『만기요람』의 기록과 고문서(古文書)에 사용된 종이의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종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가례도감의궤』와 『상방정례』에 기록된 종이심과 직물의 양을 현대의 도량형으로 환산하여 왕실복식에 사용된 종이심의 구성방식을 추측해 보았다. 조선시대 묘에서 발굴된 출토복식과 실견한 유물을 바탕으로 민간에서 사용된 종이심의 사용경향과 종이심의 구성방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의생활에서 종이심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왕실과 민간에서 사용한 종이심의 구성방식과 경향을 밝히는 데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 복식에 사용된 심감과 의복 소재로서 종이를 조명함으로써 의복구성과 소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 의의가 있다.

II. 종이심에 관한 용어 및 종이의 종류와 특징

1. 종이심에 관한 용어

1) 안지(按紙)

‘안지(按紙)’는 사전적 의미로 ‘손으로 누르다, 억

제하다’라는 뜻이 있는 ‘按’과 종이를 뜻하는 ‘紙’가 합쳐진 단어이다.⁵⁾ 즉, 종이를 손으로 누르거나 무언가를 막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용어는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이후로 지속해서 나타난다.

『가례도감의궤』와 『상방정례』를 보면, 안지라는 용어 앞에 반드시 솜이 사용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絮)’나 ‘격(隔)’에는 없는 특징이다. 가령,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에는 ‘紫의匹段襦赤古里一次所入 紫的花紋匹段十五尺 內拱大紅紬一疋 絮中綿子十兩 同正白綃長一尺五寸廣一寸五分 按紙次楮注紙四張’이라고 하여 종이심 앞에 솜의 종류와 양이 기록되어 있다.⁶⁾

『규합총서』에 따르면, 솜옷을 만들 때에는 옷감 속에 솜을 바로 두지 말고 옷 모양으로 그린 종이 위에 솜을 올려두고 통째로 개서 밟으면 솜이 고르게 분포되고 깨끗하다고 하였다.⁷⁾ 이 때의 종이는 솜을 잠재우는 용도뿐만 아니라 심감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안지는 솜옷에 사용되는 종이심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종이는 솜옷을 만들 때 솜을 잠재우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소(絮)

『가례도감의궤』에는 대(帶)에 사용된 종이심을 가리켜 ‘소(絮)’라고 하였다. 『상방정례』에는 왕비가례 시 상궁의 대를 비롯하여 숙의의 도다익대(都多益帶), 내전과 빈궁가례 시 귀유치[歸遊赤] 내관의 감투[甘吐]에 사용된 종이심을 소라고 기록하였다.

대와 감투에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성질의 심감이 필요했는지 살펴보았다. 『가례도감의궤』와 『상방정례』에 기록된 대의 길이는 약 315~376cm 이다.⁸⁾ 이는 원삼에 두르는 대대와 유사한 형태로, 외제 이단하(畏齊 李端夏, 1625~1689)부인의 대대에는 두꺼운 종이 2겹을 접은 심감이 사용되었다.⁹⁾ 즉, 대대에는 두껍고 긴 종이가 심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모자는 감투의 일종으로¹⁰⁾, 심수륜(沈秀崙, 1543~1589)의 묘에서 출토된 소모자에는 얇은 솜과 같은 종이심이 들어있다.¹¹⁾ 이는 소모자 특유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솜이나 종이와 같은 심감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즉, 소는 대나 도다익대, 감투, 소모자의 옷감 사이에 사용되는 심감을 말하며, 두껍고 뽀뽀한 종이심을 넣어 외형을 보완하고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격(隔)

‘격(隔)’은 사전적 의미로 ‘막다, 가리다’, ‘사이를 두다’라는 뜻이 있다.¹²⁾ 용어는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부터 등장하며 국말 순종가례(1906)까지 사용되었다.

격과 관련해 등장하는 물목은 양이엄(涼耳掩)이다.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에는 ‘騎行內人四衣服 涼耳掩四每次所入 冒段半骨二尺五寸式 隔次供上紙半張式’이라고 하여, 겹감 모단(冒段)과 종이에 관한 기록만 있고 안감에 대한 기록이 없다. 여기에서 종이의 역할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심감뿐만 아니라 안감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격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 양이엄에 사용된 경우 이외의 다른 용례를 살펴보았다.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에는 ‘양여모(涼女帽)’에 대해 ‘涼女帽伍次每壹次 冒段參尺式 內拱供上紙半張式’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여모는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¹³⁾, 옷감과 종이의 종류, 양을 볼 때 양이엄과 상당히 유사하다. 기록을 보면 양여모에 사용한 공상지를 가리켜 내공(內供) 즉, 안감이라고 하였으므로 공상지는 양여모의 안감으로 사용된 종이였음을 알 수 있다. 양여모와 양이엄의 재료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양이엄에 사용된 종이가 안감으로 쓰였을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중에는 양이엄을 가리마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⁴⁾ 〈Fig. 1〉¹⁵⁾은 여흥이씨(驪州李氏, 1592년 이전 추정)의 묘에서 출토된 가리마로 겹감 안쪽에 종이심을 배접했고 별도의 안감 없이 만든 것이다.¹⁶⁾ 가리마의 재료는 겹감과 종이뿐이며 이때의 종이는 심감이면서 안감의 역할을 겸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조선 왕실에서 격은 궁녀의 양이엄에 사용된 종이심을 가리키는 말이다. 구성은 겹감과 종이만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종이는 심감뿐만 아니라 안감의 역할도 겸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 종이심으로 사용된 종이의 종류와 특징

『가례도감의궤』와 『상방정례』를 보면, 왕실에서 가례를 치르기 위해 사용한 종이의 종류는 7가지로 초주지(草注紙)와 저주지(楮注紙), 도련지(搗鍊紙), 하품도련지(下品搗鍊紙), 도련저주지(搗鍊楮注紙), 공상지(供上紙), 백지(白紙)가 있다. 이처럼 종이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종이가 사용된 데에는 종이마다 각기 다른 특징과 지품(紙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초주지와 저주지, 도련지의 물성(物性)과 용도, 품질을 살펴보았다.

〈Fig. 1〉 Yeoheung Lee's Garima
- Empirical investigation research on woman's Garima in Choson Dynasty, p. 43, p. 54.

1) 종이의 물리적 특성

초주지와 저주지는 모두 닥섬유로 만든 종이다.¹⁷⁾ 두 종이의 차이는 두께와 밀도에서 나타난다. <Table 1>¹⁸⁾은 초주지(5건)와 저주지(15건)로 제작된 문서지를 수집하여 섬유 형태와 종이의 두께와 밀도를 측정한 것이다. 초주지의 두께는 저주지의 약 1.8배이며, 밀도는 약 1.5배임을 알 수 있다.

종이의 명칭 중에는 ‘도련’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련(摺鍊)을 거친 종이임을 의미한다. 도련한 종이류 가운데 종이섬으로 사용된 것은 도련지와 도련저주지, 하품도련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련은 종이 제작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뜬 종이를 건조한 후 다닐방이나 홍두께로 다듬어 섬유의 밀도와 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¹⁹⁾ 또 다른 경우는 종이를 여러 장 겹쳐 두꺼운 합지(合紙) 형태로 만들거나 할 때 도련을 한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작한 지 100년 이상 된 전통 한지 13종을 수집했을 때 그중 11종이 도련을 거친 것으로 2겹 이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많게는 4겹인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²⁰⁾ 즉, 2겹 이상의 종이를 겹쳐서 두껍게 만들거나 할 때에 도련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 선조 대의 기록을 보면 호남의 군사에게 도련지를 보내 지의(紙衣)를 만들어 입도록 한 경우가

있었는데²¹⁾, 지의가 방풍과 방한에 효과적이었던 만큼 도련지의 두께는 여러 겹의 종이를 겹쳐 두껍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²⁾

2) 종이의 용도

조선 왕실에서 사용하던 종이는 종류별로 다양한 용도가 있었다. 용도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택지준절』, 『일성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Table 2>는 종이의 종류별로 대표적인 용도를 정리한 것이다.

3) 종이별 지품(紙品)

종이의 품질은 종이의 크기, 무게, 가격에 따라 나뉜다. 종이의 지품에 관한 내용은 『택지준절』과 『대전통편』, 『만기요람』에 기록되어 있다. 각 문헌에 기록된 종이별 크기, 무게, 가격은 <Table 3>²³⁾에 제시하였다. 종이의 품질은 공상지>하품도련지>도련저주지=도련지>초주지>저주지>백지 순임을 알 수 있다.

<Table 1> Fiber Characteristics, Thickness and Density of *Chojuji* and *Jeojuji* through the Microscope

Fiber characteristic (Nikon YS100, C-dyeing liquor)			Thickness·density	
Chojuji	- Yuseo(諭書), 1691	- Yuseo(諭書), 1732	average thickness (mm)	0.21
			density (g/cm ³)	0.70
Jeojuji	- Yujil(有旨), 1624	- Yujil(有旨), 1681	average thickness (mm)	0.12
			density (g/cm ³)	0.46

- *Chojuji and Jeojuji of Joseon Dynasty*, pp. 177-178
- *An Analysis of Papers Used in Historical Manuscripts*, p. 101

<Table 2> Typical uses by Types of Paper

Paper	Use	Status	Literature
Chojuji	docu.	<i>Gyesa</i> (啓辭), <i>Gyoseo</i> (教書)	office→king (Jo) <i>Seonjo</i> Sep. 1, 1607
	prize	after crown prince complete reading	king→crown prince (Seong) <i>Gojong</i> Nov. 1, 1882
	donation	a queen dowager, king and queen	queen dowager (Jo) <i>Heonjong</i> Jun. 11, 1839
	wedding	paper for crown prince's wedding ceremony	crown prince (Jo) <i>Gwanghae</i> Aug. 3, 1611
	etc.	<i>Eosahwa</i> (御史花), <i>Gongjosikseon</i> (工曹食扇)	- (Tak) <i>Hoegamjo</i> (會減條)
Jeojuji	docu.	paper used in general at the government office	office (Seong) <i>Injo</i> Feb. 3, 1646
	book	<i>Uigwe</i> (儀軌), <i>Gyeokji</i> (隔紙)	- (Tak) <i>Hoegamjo</i>
	wedding	paper for crown prince's wedding ceremony	crown prince (Jo) <i>Gwanghae</i> Aug. 3, 1611
Doryeonji	diplomacy	demands of <i>Myeong</i> 's ambassadors or gifts for them	king, ambassador→ <i>Myeong</i> (Jo) <i>Sejong</i> Sep. 12, 1423
	book	<i>Bulgyeongji</i> (佛經紙)	- (Jo) <i>Sejong</i> May. 19, 1426
	costume	military uniforms, made of paper(紙衣)	king→military (Jo) <i>Seonjo</i> Oct. 3, 1592
Hapumdoryeon	docu.	<i>Baekpae</i> (白牌) and <i>Nokpae</i> (祿牌) for royals	office→royal family (Tak) <i>Hoegamjo</i>
	book	printing of <i>Ilgi</i> (日記) or <i>Deungrok</i> (登錄)	- (Tak) <i>Hoegamjo</i>
Doryeonjeojuji	docu.	memorials to the king, reports, official documents	office, courtiers→king (Bi) <i>Sukjong</i> Aug. 8, 1690
	book	<i>Deungrok</i>	- (Jo) <i>Gwanghae</i> Sep. 21, 1610
Gongsangji	donation	-	king, queen (Jo) <i>Gwanghae</i> May. 2, 1608
	docu.	<i>Yuseo</i> , <i>Gyoseo</i> , <i>Bulyunbidap</i> (不允批答)	king→office (Jo) <i>Seonjo</i> Sep. 5, 1604
	diplomacy	demands of <i>Myeong</i> 's ambassadors	king→ <i>Myeong</i> (Seong) <i>Injo</i> Feb. 19, 1625
	wedding	donations for crown prince wedding ceremony	crown prince (Jo) <i>Gwanghae</i> Aug. 3, 1611
Baekji	docu.	<i>Deungrok</i> , documents of the government office	- (Tak) <i>Hoegamjo</i>
	diplomacy	paper for funeral rites in <i>Cheong</i>	king→ <i>Cheong</i> (Seon) <i>Injo</i> Dec. 2, 1641
	costume	supplies for military	king→military (Jo) <i>Sukjong</i> Jun. 11, 1720
		mourning hats	- (Jo) <i>Sukjong</i> Jun. 11, 1720

<Table 3> Size, Weight and Price by Types of Paper

Paper	Size 『Tak』	Weight 『Dae』	Rice price per book 『Tak』	Price per sheet 『Tak』, 『Man』
Gongsangji	-	-	『Man』 5石	-
Hapumdoryeonji	2尺3寸×1尺8寸	-	紙地條 2石10斗	4錢6分6里
Doryeonjeojuji	2尺2寸×1尺8寸	2斤	紙地條 2石5斗 修理契 2石10斗	4錢4分
Doryeonji	-	-	修理契 2石10斗	-
Chojuji	2尺2寸×1尺5寸	11兩	紙地條 1石	2錢6分6里
Jeojuji	2尺2寸5分×1尺7寸	-	紙地條 7斗5升	6分6.5里
Baekji ²⁴⁾	1尺7寸×1尺	-	-	2分2里

Ⅲ. 왕실 복식에 사용된 종이심의 양과 구성방식

『가례도감의궤』와 『상방정례』에 의하면 왕실 복식에 사용된 종이심 종류는 총 7가지로 초주지, 저주지, 도련지, 공상지, 도련저주지, 하품도련지, 백지가 있다. <Table 4>는 두 문헌에 기록된 종이심의 종류를

정리한 것으로 『상방정례』이후로는 의궤의 기록이 동일하여 표에는 생략하였다. 표를 보면, 저주지와 도련지는 소현세자 가례부터 지속해서 종이심으로 사용된 종이임을 알 수 있다. 도련저주지와 하품도련지, 백지는 궁녀의 양이엄에 사용된 종이심인데 인조 장렬왕후 가례이후부터 공상지로 대체되며 그 이후에는 사용된 기록을 볼 수 없다.

<Table 4> *Jongi-sim's types in 『Garyedogamuigwe』 and 『Sangbangjeongrye』*

Literature		Chojuji	Jejuji	Doryeonji	Gongsangji	Doryeon jejuji	Hapum doryeonji	Baekji
Garyedogam uigwe	crown prince Sohyeon	-	○	○	-	-	○	○
	Injo Jangyeol	○	○	○	-	○	-	○
	Hyeonjong Myeongseong	-	○	○	-	-	-	-
	Sukjong Ingyeong	-	○	○	○	-	-	-
	Sukjong Inhyeon	-	○	-	○	-	-	-
	Sukjong Inwon	-	○	-	○	-	-	-
	Gyeongjong Danui	-	○	○	○	-	-	-
	Gyeongjong Seonui	-	○	○	○	-	-	-
	crown prince Hyojang	-	○	○	○	-	-	-
	crown prince Sado	-	○	○	-	-	-	-
Sangbangjeongrye		○	○	○	○	-	-	-

<Table 5> The Records on *Jongi-sim* used for *Po*(袍) in 『Garyedogamuigwe』 and 『Sangbangjeongrye』

Case	Literature	Status	Type of <i>Po</i>		Paper (張)		Silk-cotton (斤·兩)
Wedding costume	<i>Garyedogam uigwe</i>	crown prince <i>Sohyeon</i>	padded	<i>Cheolik</i>	<i>Jeojuji</i>	20	1·9
				<i>Aekjureum</i>		16	1·4
		king <i>Injo</i>		<i>Cheolik</i>	<i>Chojuji</i>	20	1·9
				<i>Aekjureum</i>		<i>Chojuji</i>	11
	<i>Sangbang jeongrye</i>	king <i>Yeongjo</i> , crown prince <i>Sado</i>		<i>Cheolik</i>	<i>Chojuji</i>	12	2·0
				<i>Gwadu</i>		12	2·0
Ordinary costume (<i>Tani</i> (誕日), <i>Jeongjo</i> (正朝), <i>Dongji</i> (冬至))	<i>Sangbang jeongrye</i>	donations to king <i>Yeongjo</i>	<i>Dapho</i>	<i>Jeojuji</i>	56	5·15	
			<i>Cheolik</i>				
			<i>Cheolik</i>				
			<i>Gwadu</i>				
		donations to crown prince <i>Sado</i>	<i>Dapho</i>	<i>Jeojuji</i>	56	4·6	
			<i>Cheolik</i>				
<i>Cheolik</i>							

왕실남자 복식에 종이심이 사용된 것은 철릭과 액주름, 과두, 바지, 대, 이업, 감투가 있다. 대전과 세자궁의 경우 철릭과 액주름, 과두에 종이심을 넣었으며, 비빈의 부의 철릭에도 사용되었다. 이들은 포의 종류에 관계없이 솜옷에 종이심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상방정례』天에서 탄일(誕日)이나 절기(節氣) 진상(進上)을 보면, 대전과 세자궁은 의례복 외에 평상시에 도 겨울에는 종이심을 넣은 솜옷을 착용했는데 종이심이 방한의 목적으로 쓰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포에 들어간 종이심의 종류에는 초주지와 저주지가 있다. <Table 5>는 가례 시 대전과 세자궁의 포에 사용된 종이심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소현세자가례를 제외하고 그 이후의 가례부터는 초주지가 사용되었고 평상시에는 저주지를 사용했다. 가례와 같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는 평상시에 비해 좋은 품질의 종이를 썼던 것으로 짐작된다.

왕실 여자복식 중에는 저고리와 호수(胡袖), 치마, 대, 도다리대, 양이업에 종이심이 사용되었다. 종이심을 사용한 신분은 중궁전과 빈궁, 숙의(淑儀), 대군부인(大君夫人), 공주, 옹주 외에도 상궁과 시녀, 유모, 기행내인, 보행내인, 기비(騎婢)도 포함되었다. 상궁을 포함한 궁녀들은 치마와 대, 양이업에 종이심을 사용했다. 종이심의 종류는 초주지, 저주지, 도련지, 도련저주지, 하품도련지, 공상지, 백지로 남자 복식에 비해 다양한 지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철릭[帖裏]

왕실 남자 포 가운데 대표적으로 철릭에 사용된 종이심의 면적과 옷감의 양을 비교해 보았다. <Table 6>은 소현세자와 『상방정례』에 기록된 영조와 사도세자의 철릭에 소요된 종이심의 면적을 비교

하기 위해 문헌에 기록된 수치를 현대의 도량형으로 환산한 것이다.²⁵⁾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와 『택지준절』은 문헌이 편찬된 시기의 차가 크지만 가례 시 착용한 철릭의 크기는 시대별 큰 변화가 없이 전례(前例)를 답습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얻은 결과임을 밝힌다.

소현세자의 철릭에 필요한 옷감의 양은 토주(吐紬) 45尺(≒2,115cm)이다.²⁶⁾ 『택지준절』에 기록된 토주의 폭은 7寸(≒33cm)이므로²⁷⁾, 옷감의 총 면적은 69,795cm² 이다. <Table 6>에서 소현세자의 철릭에 사용된 저주지의 면적(168,980cm²)과 비교해 보면, 종이심의 양은 옷감의 양에 비해 약 2.4배 많은 양이다. 이는 철릭 전체에 종이심을 2겹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임을 알 수 있다. 외제 이단하 부인의 원삼은 전체에 종이심1겹을 두고 소매에는 1겹을 덧대어 2겹으로 만들었다.²⁸⁾ 따라서 철릭 전체에 심감을 2겹을 두어 제작한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철릭에는 초주지 12장이 심감으로 사용되었다. 『상방정례』에는 철릭에 필요한 옷감의 양이 1필(疋)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는 정확한 소요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관계로 소현세자가례 기록으로 대신해 살펴보았다. 철릭에 소요된 옷감의 면적은 69,795cm²이고 초주지 12장의 면적이 87,480cm² 이므로 종이심의 양은 옷감에 비해 약 1.3배 더 많은 양이다. 따라서 영조와 사도세자의 철릭에는 옷 전체에 초주지 1겹을 넣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저고리[赤古里]와 호수(胡袖)

왕실 여자 저고리의 경우 솜옷과 겹옷에 종이심을 두었다. 특히, 겹옷에 종이심을 둔 사례는 소현세자

<Table 6> The Quantity of *Jongi-sim* used for *Cheollik* of a King and Crown Princes

Status	Paper	Paper size(cm)			Paper area(cm ²)	<i>Jongi-sim</i> area(cm ²)
Crown prince <i>Sohyeon</i>	<i>Jeojuji</i>	length	2尺2寸5分	105.8	8,449	20 sheets
		width	1尺7寸	79.9		168,980
King <i>Yeongjo</i> , Crown prince <i>Sado</i>	<i>Chojuji</i>	length	2尺2寸	103.4	7,290	12 sheets
		width	1尺5寸	70.5		87,480

〈Table 7〉 The Quantity of *Jongi-sim* used for *Jeogorie* and *Hosu*

Literature		Status	Type of upper wear		Paper(張)		Silk-cotton(兩)		
Garyedogam uigwe	Sohyeon	crown princess	padded	Jeogori	Jeojuji	9	10		
				Hosu		10	10		
	Injo Jangyeol	queen		Jeogori	Jeojuji	10	10		
				Jeogori		4	10		
				Hosu		4	10		
				Jeogori	Chojuji	9	10		
				Hosu		8	10		
				Sukjong Inhyeon	queen	Jeogori	Jeojuji	4	10
						Jeogori		9	10
	Hosu	8				10			
Sangbangjeongrye		queen		Jeogori	Jeojuji	4	10		
				Hosu	Chojuji	8	10		
		crown princess		Jeogori	Jeojuji	2	10		
				Hosu	Chojuji	8	10		

가례 시 빈궁이 입은 겹 단(短)저고리가 유일하다. 〈Table 7〉은 중궁전과 빈궁의 저고리와 호수에 사용된 종이심의 양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솜의 양은 일정한데 반해, 종이의 수량은 2장부터 10장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8〉을 보면 호수에 사용된 옷감의 양은 저고리보다 적거나 같다. 따라서 호수의 크기는 저고리에 비해 작거나 같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Table 7〉에서 『상방정례』의 기록을 보면 호수에 사용된 종이심의 양은 저고리보다 2배 또는 4배 많은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는 저고리보다 호수에 더 많은 종이심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철릭과 같은 방식으로 저고리에 사용된 종이심과 옷감의 양을 살펴보았다. 비교 대상은 소현세자빈의 저고리와 『상방정례』에 기록된 숙의의 저고리이다.

세자빈이 입은 저고리의 겹감은 필단이 사용되었다.²⁹⁾ 그러나 『탁지준절』에는 필단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직물의 폭을 알 수 없어, 빈궁과 숙의의 저고리에 사용된 옷감의 소요량은 안감으로 살펴보았다. 〈Table 9〉는 소현세자빈과 『상방정례』의 숙의 저고리에 사용된 종이심과 옷감의 양을 비교한 것이다.

빈궁 저고리의 안감은 초(綃)이며 저주지 10장이 사용되었다. 〈Table 9〉에서 보듯이 종이심의 양은 옷감의 양에 비해 3.3배 많다. 이는 저고리 전체에 저주지 3겹을 넣을 수 있는 양이다. 숙의 저고리의 안감은 정주(鼎紬)이며 저주지 4장이 사용되었다. 빈궁 저고리와는 달리, 옷감과 종이심의 양이 거의 같다. 따라서 숙의의 경우 저고리 전체에 저주지 1겹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8〉 The Quantity of Fabrics used for *Jeogorie* and *Hosu*

Literature		Status	Fabric	Hosu(尺·寸)	Jeogori(尺·寸)
Garyedogam uigwe	Sohyeon	crown princess	Toju	19·1	21
	Injo Jangyeol	queen	Pildan	10·6	15
Sangbangjeongrye		prince	Ju	21·0	21·0

〈Table 9〉 The Quantity of *Jongi-sim* and Fabrics used for *Jeogori* of Crown Princess *Kang* in 『*Sohyeonseja-Garyedogamulgwe*』 and *Sukui*(淑儀) in 『*Sangbangjeongrye*』

Status	Area of fabric(㎢)			Area of <i>Jeoguri</i> (㎢)	
crown princess <i>Kang</i>	lining) <i>Cho</i> (絹)	length	10尺5寸(493.5cm)×1尺1寸(51.7cm)	10sheets	84,449
		area	25,514		
<i>Sukui</i>	lining) <i>Jeongju</i> (鼎紬)	length	22尺(1,034cm)×7寸(32.9cm)	4sheets	33,796
		area	30,019		

〈Table 10〉 The Quantity of *Jongi-sim* and Silk-Cotton used for *Hosu*

Literature	Status	Fabric(尺·寸)		Paper(張)		Silk-cotton(兩)
<i>Garyedogam uigwe</i>	<i>Sohyeon</i>	crown princess	<i>Pildan</i>	10·6	<i>Jeoguri</i>	10
			<i>Toju</i>	19·1		10
	<i>Injo Jangyeol</i>	queen	<i>Pildan</i>	10·6	<i>Jeoguri</i>	4
			<i>Toju</i>	-	<i>Choguri</i>	8
	<i>Sukjong Inhyeon</i>	queen	<i>Toju</i>	-	<i>Jeoguri</i>	8
			<i>Toju</i>	-	<i>Choguri</i>	8
<i>Sangbangjeongrye</i>	queen	padded	<i>Toju</i>	-		10
	crown princess		<i>Toju</i>	-		10
	princess		<i>Ju</i>	21·0	<i>Jeoguri</i>	4

호수에는 초주지와 저주지가 심감으로 사용되었다. 〈Table 10〉은 신분별 호수에 사용된 종이심의 양을 정리한 것이다. 호수에 사용된 종이심의 양은 4장부터 10장까지로 나타났으며, 중궁이 착용한 호수는 저고리보다 2배 많은 양의 종이심이 사용되기도 했다.

3. 대(帶)와 도다익대(都多益帶)

대와 도다익대에 사용된 종이심의 종류는 4가지로 소현세자가례 시 빈궁의 대에는 하품도련지가 사용되었고, 상궁은 도련지, 시녀와 유모의 경우 저주지가 쓰였다.³⁰⁾ 인조장렬왕후 가례에는 상궁의 대에 도련저주지가 사용되었다.³¹⁾ 그 이후로 『상방정례』의 기록을 보면 대와 도다익대에 사용된 종이심은 모두 도련지로 통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품(紙品)의 순서와 계급의 순서를 함께 살펴보면, 하품도련지(빈궁) > 도련저주지(상궁) = 도련지(상궁) > 저주지(시녀, 유모) 순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인조장렬왕후가례까지는 계급 순서와 지품의 순서가 일치함을 볼 수 있는데, 대에 사용된 종이심은 신분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양이엄(凉耳掩)

인조장렬왕후가례까지 양이엄에는 도련지와 백지, 솜이 사용되었다. 양이엄의 형태와 구성법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재료로 본다면 파평윤씨(坡平尹氏, ?~1566) 솜토시(No.34, 35)와 같이 ‘겉감-종이-솜-종이’와 같은 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²⁾ 숙종인현왕후 가례부터는 양이엄에 솜이 빠지고 도련지와 백지는 공상지 1/2장으로 통일되었다. 앞에서 격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양이엄이 가리마일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공상지와 모단은 〈Fig. 1〉과 같은 구성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출토복식에 나타난 종이심의 사용 경향과 구성방식

1. 출토복식에 나타난 종이심의 사용 경향

현재까지 보고된 출토 복식 가운데 종이심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분묘는 총 35기이다. 이 가운데 의복 전체에 종이심이 사용된 경우는 26기이며, 나머지 9기는 옷의 일부에만 사용된 경우이다. 의복 전체에 종이심을 사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16세기 중반부터 임란 직후이다. 이 시기의 출토 분묘는 총 49기로, 18기(약 37%)의 분묘에서 의복 전체에 종이심이 사용된 복식이 발견되었다.

종이심의 사용 경향을 보면, 임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에는 옷 전체에 종이심을 사용하는 경우와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가 후기에는 옷 전체에 종이심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사라지고 의복 일부분에만 넣는 경우만 출토되었다. <Fig. 2>는 종이심을 사용한 묘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종이심의 사용 경향이 달라진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조선 후기 제지 수공업의 쇠퇴와 17세기 이후 기후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임란 이후 국가 차원에서 종이를 생산하던 조지서(造紙署)의 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전국적인 기근과 재해, 흉작으로 인해 원료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³³⁾ 따라서 조선 전기보다 후기에 종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며 의복에 종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치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17세기 후반 전 세계의 기후변화를 보면, 1500년대부터 1750년대까지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난 시기³⁴⁾, 여름에 눈이나 서리가 내리고 겨울에는 극심한 한랭기후가 이어졌다.³⁵⁾ 이를 소빙기(小氷期, Little Ice Age)라고 한다.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후반의 한반도는 소빙기가 절정에 이른 시기로 그 이후부터는 소강상태에 들어 기온이 점차 회복되었다.³⁶⁾ 따라서 17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솜옷의 사용과 함께 종이심의 사용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임란 이후 시대적 상황과 기후

변화적 측면에서 해석한 것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출토복식에 나타난 종이심의 구성방식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약 160기의 출토 분묘를 대상으로, 의복 전체에 종이심이 사용된 경우와 일부분에 사용된 경우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의복 전체에 종이심이 사용된 경우는 겹, 솜, 누비가 해당되며, 의복의 일부에 사용된 경우는 홑, 겹, 솜옷이었다.

1) 의복 전체에 종이심을 사용한 경우

의복 전체에 종이심을 사용된 경우는 포(袍)와 반비류(半臂類)가 있다. 포류에는 철릭 25점, 답호 4점, 직령 3점이 출토되었고 이외에 도포, 대창의, 중치막이 있다. 왕실의 경우 대전과 세자궁의 액주름과 바지에 종이심을 둔 사례가 있었으나 민간에서는 아직 출토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철릭은 솜과 겹에서 모두 종이심이 사용되었다. 겹철릭에 종이심을 사용한 것은 17점으로 63%의 비율을 차지한다. 구성방식에는 전체 종이심을 넣고 겹에 별도로 솜을 둔 방식(6점)과 전체 종이심만 사용하는 방식(11점)으로 구분된다.

연구자는 경기도박물관의 협조를 얻어 철릭 3점을 실견하였다. 유물은 이흠 학술 2060과 심수륜의 No. 7, 11이다. 3점에 사용된 종이심은 표면에 잔털이 있었으며 얇은 부직포나 모직물과 같이 남아있었다. 심수륜 No. 7과 11의 경우 옷의 겉·안감을 바느질해 있듯이 종이심도 겹과 겹을 바느질로 이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Fig. 3>³⁷⁾은 심수륜 No. 7과 이흠 학술 2060의 종이심 표면을 촬영한 사진이다.

종이심의 두께를 알기 위해 서로 다른 지점에서 4~5회에 걸쳐 두께를 측정하였고 평균을 낸 결과, 심수륜 No. 11에 사용된 심감은 두께가 0.24mm로 가장 두꺼운 종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흠 학술 2060은 0.198mm, 심수륜 No. 7은 0.189mm로 거의 비슷한 두께로 측정되었다.

조선시대 복식에 사용된 종이심에 관한 연구

소빙기의 절정 (1550~1650년대) 의복 전체와 일부분에 종이심 사용 의복 전체에 종이심 사용

의복 일부분에 종이심 사용 16세기 중반~임란직후 출토 분묘

〈Fig. 2〉 The current situations of tombs that Jonggi-sim was excavated

〈Fig. 3〉 Joingi-sim's Surface used in Cheollik
Gyeonggi Province Museum Su-Ryun Shim No. 7(R), Heum Lee Haksul 2060(L)
- Direct photography, Nov. 6, 2014

〈Fig. 4〉 The Marks of Hair Stitches of Joingi-sim
Gyeonggi Province Museum Su-Ryun Shim No. 11
- Direct photography, Nov. 6, 2014

심수륜의 No. 11에는 〈Fig. 4〉³⁸⁾처럼 종이심 전체에서 발끈 자국이 보였다. 발끈 종이를 뜯 때 사용하는 것으로 대나무를 실로 엮어 만든 것인데, 자국의 너비는 10~12mm 정도로 균일한 모습이였다. 문서지의 경우 이 같은 너비는 1820년대 초부터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³⁹⁾ 이는 심수륜(沈秀崙, 1534~1589)의 생몰년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발끈의 너비로 종이의 시대적 특징을 파악하거나 종류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철릭 3점은 공통적으로 치마 구성방식이 동일했다. 치마의 겹주름을 잡을 때에는 겹감을 홀로 잡고 안주름은 종이심과 안감을 함께 잡아 길과 연결하였

다. 치마 밑단에는 겹감의 안쪽에 종이심이 있어, 결과적으로 종이심은 서로 엇갈린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구성법은 치마의 주름을 차분하고 세밀하게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11〉⁴⁰⁾은 이 흙 2060의 치마 봉제와 관련한 사진과 도식화이다.

숨철릭은 겹철릭에 비해 종이심을 사용한 경우가 적었다. 종이심을 사용한 숨철릭은 총 11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서 8점이 변수(邊脩, 1447~1524)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총 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숨철릭의 구성방식은 '겹감-종이-숨-안감' 순으로 제작되었다. 김흠조(金欽祖, 1461~1528), 변수, 홍계강(洪季康, 1450~1500), 에서 출토된 철릭은 '종이-숨-

〈Table 11〉 The Construction Method of *Jongi-sim* used for the Skirt Part of *Cheollik*

치마: 종이심+안감	도련: 겹감 안쪽에 심감	치마 옆선의 단면 도식화

- Gyeonggi Province Museum *Lee Heum Haksul* 2060
- Direct photography, Nov. 6, 2014

안감'을 마치 1장의 안감처럼 다루어 바느질한 것이다.

여자 저고리 전체에 종이심이 사용된 것은 총 12기에서 확인되었다. 저고리의 길이에 따라 살펴보면, 60cm미만의 짧은 저고리는 7점, 60cm 이상의 긴 저고리는 24점이 있다.⁴¹⁾ 긴 저고리의 경우 겹옷은 14점, 솜옷은 10점인데, 겹저고리의 경우 전체 종이심을 두고 깃에 별도의 솜을 두어 제작하는 방식이 13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겹저고리의 출토 수량이 솜저고리보다 많은 것은 외의(外衣)로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추측된다.

연구자가 실견한 장저고리는 2점으로 연안김씨(延安金氏, 16세기 중반)의 솜 장저고리 No. 10과 평양이씨(平壤李氏, 1502~1579)의 겹 장저고리 학술

1807이다. 저고리에 사용된 종이심의 두께를 측정해 본 결과, 연안김씨 No. 10은 총 5회 측정해서 평균 0.22mm, 평양이씨 학술 1807은 총 4회 측정해서 평균 0.16mm로 나타났다. 평양이씨의 저고리에 사용된 종이심이 연안김씨의 것에 비해 훨씬 얇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연안김씨 No. 10을 통해 솜저고리의 구성방식을 살펴보았다. 저고리를 완성한 후에 완성선보다 0.5~1cm 안쪽을 상침하여 가장자리를 도톰하게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 종이심은 솜의 완성선보다 1.5~2cm 가량 못 미치는 부분까지만 종이심을 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고운 땀으로 수월하게 상침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으로 보인다. 〈Fig.

〈Fig. 5〉 The Construction Method of *Jongi-sim* used for *Jeogori's Git(L)* and *Mu(R)*
Gyeonggi Province Museum *Yeonan Kim's Jangjeogori*(No. 10)
- Direct photography, Nov. 6, 2014

5)42)는 No. 10에 나타난 것과 무의 종이심 모습이다.

조선 왕실에서는 소현세자빈의 겹치마에 종이심이 사용된 것 이후로 『가례도감의궤』나 『상방정례』에서는 그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반면, 민간의 출토복식을 보면, 임란 이전과 직후에 겹치마와 솜치마에 모두 종이심을 사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종이심을 사용한 치마는 총 8점으로 겹이 4점, 솜 3점, 누비 1점이다. 묘주별로 살펴보면 파평윤씨(坡平尹氏, ?~1566)의 묘에서 3점, 연안김씨(延安金氏, 16세기 중반)의 묘에서 2점, 인천 석남동 출토 무연고(15~16세기 추정)묘, 평양이씨(1502~1579), 장기정씨(長鬐鄭氏, 1565~1614)의 묘에서 각 1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솜 누비치마에 종이심을 사용한 평양이씨의 경우, 1500년대 초반의 인물이므로 꽤 오래 전부터 누비치마에 종이심을 둔 방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누비에 종이심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의복류에도 충분히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누비의 특징 중 하나는 옷을 해체하지 않고 누벼진 채로 세탁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종이가 물속에서도 두드림이나 마찰, 압축과 같은 물리적 작용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³⁾

2) 의복 일부분에 종이심을 사용한 경우

의복의 일부분에 종이심을 사용하는 경우는 깃, 끝동이나 거들지, 단령과 답호의 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자의복 가운데 깃에 종이심이 사용된 경우는 변수의 홀철릭이 있다. 종이와 솜이 함께 사용된 경우는 심수륜과 홍계강의 겹철릭, 이언충(李彦忠,

1524~1582)의 겹답호, 심수륜의 겹직령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자의복 가운데 깃에 종이심이 사용된 경우는 경주이씨(慶州李氏, ?~1684)와 연안김씨, 파평윤씨의 솜저고리 각 1점이 있다. 종이와 솜이 함께 사용된 경우는 연안김씨, 파평윤씨, 의인박씨(宜人朴氏, 16~17세기)의 겹저고리가 있다. 이처럼 깃에 종이심을 사용한 것은 보온보다는 깃의 형태 유지의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끝동이나 거들지에 종이심을 사용한 경우는 당의와 장옷에서 볼 수 있다. 당의는 안동권씨(安東權氏, 1664~1722)의 묘에서 출토된 것이 있고, 장옷은 제주고씨(濟州高氏, 17세기 초), 안동권씨, 은진임씨(恩津林氏, 17세기 중반)의 묘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 제주고씨 장옷의 경우 <Fig. 6>⁴⁴⁾처럼 장옷의 긴 소매단을 길 쪽으로 접어 별도의 거들지를 부착하지 않고 거들지와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종이심은 안으로 접어 들어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어 옷감을 대신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에 종이심이 사용된 경우는 단령과 답호에서 볼 수 있다. 종이심은 무의 뽕직한 윗부분에 사용되었는데, 형태를 바로 잡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령의 경우 남오성(南五星, 1643~1712), 심익창(沈益昌, 1652~1725), 밀창군 이직(密昌君 李穡, 1677~1746)의 묘에서 각 1점이 출토되었고, 답호의 경우 이언충(李彦忠, 1524~1582)의 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Fig. 6> Cuffs of Jeju Ko's Jangot(No. 1)

- A Study on the excavated costumes from Jeju Ko's tomb, p. 116.

V.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복식에 사용된 종이심에 대해 관한 것이다. 문헌기록을 통해 관련 용어와 종이의 특징, 왕실 복식에 사용된 종이심의 구성을 알아보았으며, 출토복식을 통해 종이심의 사용 경향과 민간의 종이심 구성방식을 고찰하였다.

왕실 문헌에 기록된 종이심에 관한 용어는 안지(按紙), 소(槩), 격(隔)이 있다. 안지는 솜옷에 종이심을 사용할 때 기록된 용어이다. 소는 옷감 사이에 두껍고 뽀뽀한 종이심을 넣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로 보이며, 격은 종이가 심감뿐만 아니라 안감으로 쓰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문헌 기록에 나타난 왕실 남자 복식 중에는 대전과 세자궁의 철릭, 액주름, 바지, 대에 초주지(草注紙)가 사용되었다. 종이심과 옷감의 양을 비교해 볼 때, 철릭의 경우 전체에 1~2겹의 종이심을 넣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여자 복식 가운데 저고리, 호수, 치마에는 초주지와 저주지, 대에는 도련한 종이 사용되었다. 도련한 종이는 여러 장의 종이를 합해 만든 만큼 두꺼운 심감이 필요할 때 사용된 종이였다. 양이엄에는 솜과 함께 도련지, 백지(白紙)가 사용되었다 공상지로 통일되었다.

출토복식에 나타난 종이심의 사용 경향은 조선 전기에는 의복 전체와 일부분에 사용되는 방식이 혼용되었다. 후기에는 전체에 종이심을 두는 방식이 사라지면서 일부분에만 종이심을 사용하는 방식이 남았다. 이러한 경향의 요인으로 임란 이후 제지수공업의 쇠퇴와 기근, 재해로 인해 종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았고, 17세기 후반 조선의 기후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였다.

남자의복 중 옷 전체에 종이심을 둔 것은 철릭, 답호, 직령, 도포, 대창의, 중치막, 반비류가 있다. 철릭 치마의 경우 주름 쪽 종이심은 안감 쪽에 있고, 도련 쪽의 종이심은 겉감 쪽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자의복 중에는 의례용으로 입던 긴 저고리에 종이심이 주로 사용되었다. 솜옷의 가장자리를 상침하는 경우는 종이를 완성선에 못 미치는 곳까지 두어 바느질할 수월하게 했다. 의복의 일부분에 종이심을 두

는 방식은 깃과 당의와 장옷의 끝동이나 거들지, 단령과 답호의 무에 사용되었다.

이상 조선시대의 종이심에 관해 왕실과 민간으로 나누어 사용 경향과 구성방식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종이심과 관련된 용어로 '안지'라는 용어와 의미만 간단히 소개되었으나, 이 연구를 통해 '소'나 '격'과 같은 또 다른 용어가 있었으며 종이의 쓰임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에 기록된 종이심과 옷감의 양을 현대의 도량형으로 분석함으로써 임란 직후부터 조선 후기 왕실 복식의 구성 방식을 추정하였다. 이 시기의 왕실 복식은 유물로 존재하지 않아 그 형태와 구성을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심감의 구성 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출토 복식을 통해 민간에서 사용된 종이심의 사용 경향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철릭과 여자 장저고리를 직접 실견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간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종이의 외형상 특징과 두께, 바느질 방식과 구성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계기로 복식사 분야에서 종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추후 종이에 대한 물성 연구와 구성법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References

- 1) Park, H. S. & Lee, M. H. (2002). *Western Clothing Construction [서양의복구성]*, Seoul: Soohaksa, p. 229.
- 2) Dong-A Publishing Encyclopedia Division (1983), *Dong-A color encyclopedia 19 [동아 원색 세계대백과사전 19권]*, Seoul: Dong-A Publishing, p. 211.
- 3) Lee, E. J., Choi, Y. O., & Yun, A. J. (2004), A Study on the Traditional Construction of the Upper Garment Padded with Papers in the Late 16th Century, *JKSC, 54(6)*, pp. 115-125.
- 4) Yu, S. H. (2009), A Study on traditional *Nubi*(quilt) and the sewing method,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Kim, J. Y. (2012), A Study on the conservation of excavated costumes from *Hamyang Park's*(female, middle to late 1500's),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 5)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2002),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5)*, Seoul: Dankook University Press, p. 1187.

- 6) *Sukjong-Inhyunwanghu-Garyedogamuigwe*(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Ilbangsojang(일방소장), Junggungjeon-uidae-cha(중궁전의대차).
- 7) Son, K. J. & Kim, Y. S. (1982), *The Anthology of the historical records of Korean costume : vol. III Joseon(the code of laws, chinese classical encyclopedias, the collections of works* [한국복식사자료선집 : 조선편 III (법전, 유서, 문집류)], Seoul: Kyomunsa, pp. 500-501.
- 8) 포백척은 『택지준절(度支準折)』에 등장하는 도본(圖本)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크기는 47cm로 측정되었다. 문헌에서 대의 길이는 6尺7寸~8尺 사이로 기록되어 있다.
- 9)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ision (2006), *Overview of Korean cultural heritage important folk heritage vol. 2 costumes-embroidery*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2 복식·자수편],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ision, p. 127.
- 10) Yu, H. K. (1975),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costume* [한국복식사연구],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p. 392.
- 11) Gyeonggi Province Museum (2004), *Excavated costume from Su-Ryun Shim's tomb: Jeong-yi-gong lineage among the Shim family originated Cheongsong in Yongin* [심수륜 묘 출토복식: 용인출토 청송심씨 정이공파], Yongin: Gyeonggi Province Museum, p. 231.
- 12)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2008),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14)*, Seoul: Dankook University Press, pp. 951~952.
- 13) *Hyojaengseja-Garyedogamuigwe*(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 *Ilbanguigwe*(일방의궤), *Sang-uiwon-seon-jinbae-ji*(상의원선진배질), four *Sinyeo* and one *Yumo*(시녀사유모일).
- 14) Hwang, J. Y. (2009), *A Study on court ladies clothing of the Joseon Dynasty*,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p. 84.
- 15) Jung, G. E. (2013), *Empirical investigation research on woman's Garima in Choson Dynasty*, Pusan University Master's Thesis, p. 43, p. 54.
- 16) *Ibid.*, pp. 51-55.
- 17) Son, K. Y. (2005a), Chojuji and Jeojuji of Joseon Dynasty [조선시대의 草注紙와 楮注紙],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29, p. 176.
- 18) *Ibid.*, pp. 177-178:
종이의 두께와 밀도는 초주지 5건, 저주지 15건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평균을 낸 수치이다.
Son, K. Y. (2005b), *An Analysis of Papers used in Historical Manuscrip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5(1), p. 101.
- 19) Lee, S. C. (2012), *Beautiful traditional Korean paper, Hanji* [아름다운 우리 종이, 한지], Seoul: Hyeonamsa, p. 159.
- 20) Cheon, C. (2002), The Effect of Paper Making Methods and *Dochim* of Handmade Korean Paper(*Hanji*) on the Strength, *MOKCHAE KONGHAK*, 30(2), pp. 142~143:
Cheon, C., Kim, S. J., & Jin, Y. M. (1999), Properties of Indigenous Korean Paper(*Hanji*)-Classification of *Oeba*(single frame)Paper Making Methods-, *MOKCHAE KONGHAK*, 27(1), p. 90:
Cheon, C. (2002), *op. cit.*, pp. 134-143.
- 21) *Seonjosillok vol. 31*(선조실록 권31), October 3, 1592 (the 25th year).
- 22) *Seungeongwonilgi vol. 66*(승정원일기 권66), August 15, 1638(the 16th year).
- 23) 『탁』, 『대』, 『만』은 『택지준절』, 『대전통편』, 『만기요람』의 줄임말이다. 또한, 『택지준절』에서 종이의 가격은 지지조(紙地條)를 통해 살펴보아야 하나, 그 항목에 해당 종이가 없는 경우는 수리게(修理契)를 참고했다. 따라서 수리게의 가격으로 제시한 도련지와 도련저주지는 수리게 내에서만 비교할 수 있다.
- 24) 『택지준절』에 의하면, 백지의 다른 명칭은 초상주지(草常注紙), 저상주지(楮常注紙)라고 하였다. 초상주지의 크기는 1尺7寸×1尺이며, 저상주지는 1尺6寸5分×1尺이다.
- 25) *Takjibu*(탁지부), *Takjijuneol*(탁지준절), *Japrok*(잡록), 169:
『택지준절』에는 각 물목별 도량형을 도식(圖式)으로 제시하였고, 그림 안에 용도를 기록하였다. 종이와 옷감은 포백척(布帛尺)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6) *Sohyeonseja-Garyedogamuigwe*(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 *Ilbanguigwe*(일방의궤), *Seja-gung-uidae*(세자궁의대).
- 27) Cho, H. S. & Lee, E. J. (2003), A Study on Plain Weaved Silks at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Shown in *Takjijuneol*, *JKSC*, 53(5), p. 131:
『택지준절』(1882이전 추정)과 소현세자가례(1627)와는 시기의 차가 크므로 같은 기준 이 될 수 없으나, 심수륜(1534~1589)의 첩략(No. 27)을 보면, 토주 1폭의 너비가 36.5cm로 보고되어 있어 소현세자가례에 사용된 토주의 폭도 이와 유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 28) Bai, S. K. (1996),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racters and Textile Conservation of Mrs. Lee, *Dan-ha's Wonsam*,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5(2), p. 20.
- 29) *Sohyeonseja-Garyedogamuigwe*, *Ilbanguigwe*, *Bingung-uidae*(빈궁의대).
- 30) *Ibid.*: *Sohyeonseja-Garyedogamuigwe*, *Ilbanguigwe*, four *Sanggung* and one *Aji*(상궁사아지일); *Sohyeonseja-Garyedogamuigwe*, *Ilbang-uidae*, four *Sinyeo* and one *Yumo*(시녀사유모일).
- 31) *Injo-Jangyeolwanghu-Garyedogamuigwe*(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Ilbanguigwe-saek*(일방의대색), four *Sanggung*(상궁사).
- 32) Korea University Museum (2003), *The Collected papers vol. II of mummies of mother and son from*

- Papyeong Yun family* [파평윤씨 모자 미라 종합 연구논문집Ⅱ], Seoul: Korea University Museum, p. 193.
- 33) Kim, S. C. (2001), *Paper history*[종이 역사], Seoul: Yejin, p. 162;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994), *Korean history 24 economic structure of early Joseon Dynasty* [한국사 24 조선초기의 경제구조], Gwache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pp. 310~311.
 - 34) Kim, Y. O. (1996), Little Ice Age in history [歴史속의 小氷期], *Korean Historical Review*, 149, p. 256.
 - 35) Kim, Y. O. (1984), An Approach to Historical Climatology -The Little Ice Age in Korea,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14, p. 6.
 - 36) *Ibid.*, p. 7.
 - 37) 경기도박물관, 심수륜 칠릭 No. 7, 직접 촬영, 촬영일 2014. 11. 6; 경기도박물관 이흠 칠릭 학술 2060, 직접 촬영, 촬영일 2014. 11. 6.
 - 38) 경기도박물관, 심수륜 칠릭 No. 11, 직접 촬영, 촬영일 2014. 11. 6.
 - 39) Son, K. Y. (2005), A Study on papers used in historical documents of Joseon Dynasty,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Doctorate Thesis, pp. 83-85.
 - 40) 경기도박물관, 이흠 학술 2060, 직접 촬영, 촬영일 2014. 11. 6.
 - 41) 조선시대 저고리는 길이에 따라 단저고리는 50cm 전후, 중저고리는 60~70cm, 장저고리는 80cm 전후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60cm를 기준으로 길이를 구분하였으며, 60cm 미만의 짧은 것은 평상복, 60cm이상의 긴 것은 의례용 저고리로 보았다.
 - 42) 경기도박물관, 연안김씨 장저고리 No. 10, 직접 촬영, 촬영일 2014. 11. 6.
 - 43) Seo, Y. S. (2002), *The Clothing management* [패복 관리학], Seoul: Hyungseul Publishing, pp. 154-155; Kim, K. (2007), *Storied Paper Museum* [이야기가 있는 종이박물관], Paju: Gimmyoung Publishers, p. 88, 125.
 - 44) 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7), *A Study on the excavated costumes from Jeju Ko's tomb*, Buyeo: 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p. 116.